



“‘佛法’대로 살고 싶어 명예와 권력의 길을 버렸습니다”

공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검사, 특히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부장검사는 소시민들에게는 권력의 상징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다.

부장검사라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일순간에 놓이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권력이 어떤 것인가? 부와 명예가 저절로 따라오는, 그야말로 세속적 선망의 대상이 아닌가. 그러나 최순용(39·동국대 겸임교수) 변호사에게 있어서 '부장검사'라는 직함은 뿌리칠 수 없는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

"부처님 법을 알면 알 수록 검사라는 직업이 내게는 적합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익을 위한 일이지 하지만 업무 특성상 인종은 말도 하게 되고 상체를 주기도 하지요. 수행 시간을 좀더 갖고, 강단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부장검사직을 그만두었어요."

사법시험 준비 때도 불교 공부

최 변호사가 '부장검사' 직을 그만둔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권력과 명예를 포기한다는 고민이나 갈등은 애초부터 없었다. 불교공부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다.

서울 동대교수를 지낸 아버님이 법조인이 되길 원해 고시공부를 하고 검사가 되었지만, 마음 한 구석엔 언제나 수행이 '내 길'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81년 대일고를 졸업할 즈음, 예비고사를 준비하다 우연히 접한 불교 책들, 학교 앞 고서점에서 손때 묻은 <불교개론>과 <반야심경>을 읽은 것이 불교에 흠뻑 빠진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도 불교 책을 다치는 대로 읽었다. 조계사와 수선회, 금강경독송회, 한마음선원, 강남포교원, 보리수선원 등 인연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법문을 듣고 수행도 해보았다. 서울대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반야와 총무를 2년간 맡아 50여 연수원생들의 선생을 이끌었다.

검사로 활동하는 한편, 무엇이 올바른 불교 수행법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98년 1년간 유학한 프랑스 국립사법학교에서 붓다가 설한 근본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에 눈뜨게 된 전기를 맞았다.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간화선 일념도가 아닌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에 따라 부처님의 수행법을 차근차근 배워 나갔던 것이다.

99년 근본불교 명상수행모임인 연방족선원의 법주 스님을 만난 이후, 고타마 싯타르타가 깨달음에 이른 수행법인 아나파

부장검사 사직하고 법문집 번역 최순용 변호사



◀세속인들이 선망하는 부장 검사직을 놓고 수행과 교육, 일을 결합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최순용 변호사.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그는 요즘 법문집을 준비하며 더욱 보람을 느낀다. 사진=임민수 기자

나사티(Anapanasati, 출입식념 즉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것)와 사티파타나(Satipatana, 자신의 몸(身) 감각(覺) 마음(心) 법(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사념처(四念處)에 근거한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검사직을 자연히 놓게 되었다. 특히 지난 5월 한달간, 연방족선원에 머물며 수행지도를 해 준 미얀마의 고승 우 조티카 스님(U jotika sayadawi)을 가까이서 모시고 수행한 것이 검사직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우 조티카 스님으로부터 집중적인 위빠사나 지도를 받은 후 곧바로,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부장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어 8월부터 우 조티카 스님의 법문집 <The Residence of Mindfulness(마음챙김의 거처)>을 번역한 것

은 담마 공부의 깊이를 더해준 계기가 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 조티카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은 경정심을 가진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뒤 스님의 보석같은 법문집을 접한 후, 진지하게 담마(Dhamma, 법)의 길을 가는 구도의 심정으로 분주한 생활 중에 매일 조금씩 스님의 말씀을 번역해 이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재임시 도난 불교문화재 다량 회수

최 변호사는 그간의 번역 작업을 '진흙 속에서 보석 알을 캐내는 일'에 비유했다. 그 보석 알은 부처님께서 설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은 것'임을 재확인하고, 자신 역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대로 진리의 길을 걸으리라 다짐했다. 우 조티카 스님의 말처럼, 자신의 길을 걸고 싶었던 것이다.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삶은 부장검사직을 그만 둔 이전부터, 수한 용회사 부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어머니 조본연심(66) 보살의 가르침대로 늘 불교와 함께 있었다.

90년부터 3년간 육군 법무관 생활을 하며 21사단 군법당을 후원했으며, 93년부터 대전지검을 거쳐 서울지검, 전주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부임해서는 문화재 전문검사로 명성을 날렸다.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문화재 밀매단을 적발하고,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를 회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새 삶을 시작한 그는 요즘 어느 때 보다 행복하다. 지난 9월부터 동국대 겸임교수에 임명돼, 형법학을 가르치는 틈틈이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마냥 즐겁다.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정진하는 시간도 생겼고, 언제 어느 때나 깨어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

"지금 하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이 법(法)마음챙김 수행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매일 아침 - 저녁 한 시간씩 최선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정리하는 최순용 변호사. 김재경 기자

“전통무늬의 아름다움 아세요?”

전통무늬 DB구축 박해정 사장

"문양(文樣)은 일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할 단청은 무늬라고 해야죠." 최해정 DB구축 사장(44)은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에 탑재하는 위성항법장치(GPS)에 쓰이는 최첨단 전자지도 제작하는 박 사장(44)은 10년째 한 가지 일에 미쳐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옛 건물에 숨어있는 전통무늬를 발굴하고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자료로 만드는 일.

10년 동안 모든 자료가 3만 건을 넘는다. 그의 손을 거쳐 불국사, 봉정사, 화엄사, 운문사, 부석사, 미황사, 전등사, 보탑사를 비롯한 주요 궁궐 속의 아름다운 단청, 창틀 무늬들이 디지털 자료로 됐다.

박 사장이 처음 전통무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십년 전, 신라 삼보(三寶) 중 하나였던 황룡사 9층 목탑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던 중, 8cm가 넘는 목탑의 단청은 어떤 모양일지에 의문을 가지면서부터다.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전통사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한국 전통 무늬에 빠져 심연을 보냈다.

힘든 일도 많았다. 그동안 전통무늬 연구란 게 없었기에 어느 한 구석의 의자할 곳이 없었다. 좋은 무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야 했다. 고달픈 일이었지만 재미도 있었다.

가장 건디기 어려웠던 것은 오해의 목소리들. 동업자들은 컴퓨터로 기계 설계를 하는 사람이 '무슨 전통무늬를 복원하겠다'는 거냐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다. 단청 사진을 찍기 위해 찾은 사찰에서는 '도둑놈'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간에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많았다.

박 사장은 고생해서 얻은 자료들을 후학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줄 계획이다.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은 한국 무늬의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기스를 뽑아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박 사장은 앞으로 10년 정도 자료를 더 모아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 전통 무늬 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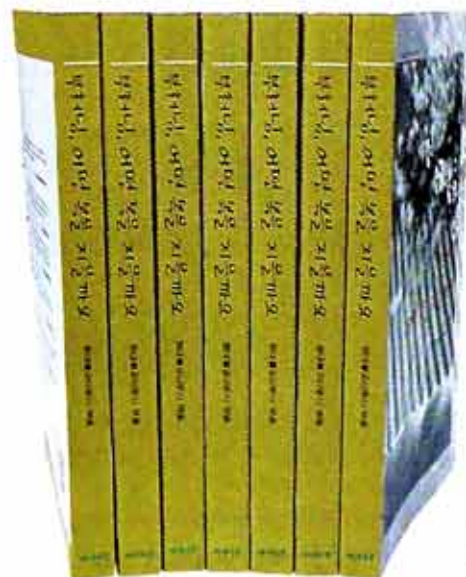
"창덕궁 인정전 옥상에 있는 사신도(四神圖)는 일제가 조선 왕실의 대를 끊기 위해 그려 넣은 거예요. 한 나라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죽은 자를 지키는 사신도를 그려 넣은 것이죠. 이제 먹고 살만 해졌으니,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이 무늬는 김은사지 3층탑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해정 사장이 전통무늬를 이용해 만든 장식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자료 더모아 단행본 발간계획 전통무늬박물관 세우고 싶어

김재경 기자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모음

김주수의 38명 현대불교신행수기 역을 신국판/409쪽/값12,000원

신행수기 통해 난관을 극복한 공로 당선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고 의지한 불자들이입니다. 누구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믿음이 바탕이 되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법을 공부해야 하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정대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우리가 비록 오탁야세(五濁惡世)에 살고 있어 바쁜 마음, 바쁜 법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불법에 귀의한 불자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업장(業障)이 무겁다 하더라도 풀어나가는 안됩니다. 그럴수록 깊은 신심과 한결같은 정진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문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수상작들은 단순히 부처님의 기피로 역경을 극복했다는 기복적인 내용보다는 아랫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향하는 '정복한 신행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불교 생활목표로 정착되고 있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불빛과 같은 인연 맺기를 기원합니다.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역경을 그저 험난하고 괴로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위엄 수록 그내용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불자들이 그렇게 참지한 신심과 정진과, 평상심에서 보람을 찾아 매일매일 새롭게 발심하기를 바랍니다.

남정 스님(총각종 총무원장)

다양한 인간 삶의 고통과 번뇌를 오로지 불심 하나로 극복해 낸 불자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현대불교신행의 지면을 통해 소개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또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서연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